



무안반도 통합·J프로젝트 등 교통수요 급증 대비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당연”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24일 본격 착공된 가운데 항공교통 및 고속철도 교통수요 연계로 인한 산업·관광 인프라 등과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반드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욱이 앞으로 추진될 무안반도 통합과 무안기업도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무안국제공항이 고속철도와 연결돼야 내륙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11조3천억 원이 투입될 호남고속철

도가 2014년 1단계(충북 오송~광주 구간)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24일 '3-2'구구(익산역~황등역)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충북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km의 호남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1단계로 2014년까지 오송~광주 구간이 우선 개통되고, 광주~목포 구간의 2단계 사업은 2017년에 완료된다.

그러나 전남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광주~목포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에서 목포를 잇는 국토해양부의 기존 노선을 무안국제공항까지 경유토록 노선 대

체를 14차례나 요구했다. 목포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 단체들도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광주~목포 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이달 들어 이 구간에 대한 경유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노선 선정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경우 기존 노선보다 17km가량의 공사구간이 늘어나 사업비가 6천500억 원 가량이 증액되는데다 선형이 곡선화돼 저속철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난색을 표한 만큼 무안공항 경유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무안공항 경유를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구체적인 공사계획 등 등 세부사항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안공항 경유 문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과 기업인들은 “국토 서남권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를 줄기차게 요

■ 호남고속철 노선도



구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도 무산된데 이어 무안공항 경유 문제도 정부 의지 부족으로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광역경제권 전국 첫 스타트

선도산업 지원단 내일 출범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도 이뤄진 '호남 광역경제권'의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할 '선도산업 지원단'이 2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면〉

호남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단(단장 남기석·이하 지원단)은 28일 광주에

크노파크에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최희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친환경(철단)부품 소재(광기술·친환경 자동차) 등 2개 분야 4개 산업 등 호남권 선도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추진한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하는 호남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해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다.

지원단은 단장을 비롯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선도산업 담당 국장 등 단원직 이사 6명, 이경식 국토연구원장, 송형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어지니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위촉직 3명 등으로 이사진을 구성했다.

호남권 선도산업의 연도별 지원예산은 올해 332억원, 2010년에는 436억원, 2011년에는 498억원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로 전국 7대 권역에 모두 9천억원이 투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금호전기, 광주에 500억 투자

국내 LED, IT조명 선도기업인 금호전기(대표이사 박명구)가 올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광주시에 총 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올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LED(발광다이오드)와 태양광(박막 태양전지) 분야 등에 모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7일 광주시와 체결한다. 시는 금호전기의 투자가 완료되면 매년 1천200억원의 매출액과 200여명의 일자리 창

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호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태양광 전지와 LED조명 분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호전기는 백열전구로 국내 1호 KS마크를 획득한 이래 전자기형광 등 안정기 세계 최초 개발 등으로 기술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너상'을 5년 연속 수상한 기업이다. 2008년 매출액은 3천63억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물살 헤치며... “여름이 좋다”

26일 곡성군 고달면 압록야영장 인근 섬진강에서 청소년들이 급류에 몸을 맡긴 채 래프팅의 스릴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웅 개러리 2



〈65×65cm·스틸〉

고근호 작 '영웅 시리즈-마릴린 먼로'

유쾌한 영웅들이 나타났다. 어려운 시대에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웅이 문화코드도 급부상한다. 고근호의 '영웅 시리즈'는 우리 마음속 영웅을 끄집어냈다.

그는 한 시대를 품어낸 유명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혁명의 아이콘' 제 게바라,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는 '어린왕자' 등을 영웅의 범주에서 재해석한다.

유명 사진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앤디 워홀의 팝아트 방식을 차용한 '마릴린 먼로'는 매스미디어

에 의해 수없이 복제되는 초라한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컬러와 질감이 만들어내는 입체감이 어우러져 평면 조각의 단조로움도 피했다.

조선시대 미대에서 조각을 전공한 고씨는 최근 싱가포르 라라사티옥션 등에서 주목을 받는 등 해외시장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www.kwangju.co.kr/)를 통해 작가의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연합뉴스' (Alliance News) featuring a keyboard background and the headline '연합뉴스를 켜야 뉴스가 보입니다' (Turn on Alliance News to see the new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